

광주시, 자동차 부품 재제조 시장 선점 나선다

송암산단에 3년간 450억원 규모 기반·유통 체계 마련
에너지밸리산단 성능평가·인증 장비 구축 R&D 진행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서 설계용역비 5억 확보 주력

광주시가 '자동차 부품 재제조' 시장 선점에 나선다.

광주시는 현재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중고차 부품 수급 및 자원 재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재제조와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회 심의 과정에 국비를 요청한 것은 당초 해당 사업을 확정된 시기와 정부 예산 접수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자동차 부품 재제조는 이미 사용된 자동차 부품을 회수해 분해·세척·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량 부품을 교환할 때 통상 새 제품이나 이른바 '재생품'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중고차 등에서 나온 부품을 활용해 새 제품과 다를 바 없는 부품을 50%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구매가 늘어날 경우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또한 탄소중립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 순환 경제 허브를 도입하면 자동차 생애주기 완성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탄소중립·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자동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생산과 재활용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 자동차부품 순환경제허브'는 송암산단의 자동차정비업체와 모빌리티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자동차부품 재제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단에는 재제조 성능 평가 및 인증장비를 구축해 기업에 지원하고 재제조 기법연구개발(R&D)도 진행한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 선도 사업으로 송암산단에 재제조 1단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완성차 참여를 유도해 자동차부품 재제조 사업을 모델화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광주시는 450억원(국비 170억원, 시비 8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송암산단에 수거·분해·분류·선별할 수 있는 플랫폼, 부품 재제조 생산업체,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등 재제조부품 생산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재제조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5개 창업, 직접 고용 17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경쟁비(카센터) 1천곳 가운데 50%인 500곳을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산단에는 성능 평가 R&D 단지를 구축, 자동차 부품 재제조 성능 평가 지원과 재제조 기법 R&D 지원에 나선다. 향후 완성차 업체로 참여가 확대되면 자원 소비 90% 감소, 고공 2배 증가, 경제 효과가 높은 '자동차 생애주기 완성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에는 현재까지 자동차 재제조 기반을 구축한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 광주가 자동차 생애주기 완성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



꽃길 걸으며 가을정취 만끽 화창한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화순군 도곡면 고인들 가을꽃 축제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꽃길을 걸으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

탄생 100주년 '평화페스티벌'...다시 김대중

5-6일 목포서 세계적 평화 권위자 특강·테마토크쇼 등 다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5-6일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평화페스티벌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해 개최식, 기조 강연, 특별강연,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강연,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주중 최저기온 '뚝'...2-5도 분포 '쌀쌀'

이번 주중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웠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4일 광주·전남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9-14도, 19-22도로 예보됐다.

5일 오전 10시 영암 호벌현대바이라한에서 열리는 개최식에선 김영록 전남지사의 개회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환영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베리트 레이스 안테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저명 인사들의 축하 영상이 소개됐다.

본행사에선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자넷 잡스 남아공 투투재단 CEO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한 국에 대한 함의' 기조강연이 준비됐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부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 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이 한국 문화예술과 한류 문화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테마토크쇼 '김대중과 한류 문화'가 진행된다. 이은 명필름 대표, 배우 장현성, 역사학자 전우용, 역사 스토리텔러 썬 김 등이 참여한다.

6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특별강연에는 신병진, 기우위, 인공지능(AI) 분야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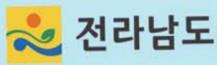
계적 권위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5일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의 저명한 평화학 권위자인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국-중국-러시아의 대결과 세계평화의 길' 특별강연이 있고 김명자(KAIST 이사장) 전 환경부장관과 아시아 최초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내 승소한 우리나라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특별강연·토론이 진행된다.

6일 오전엔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이며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인 특임교수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상근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Today

시민 절반 이상 "대·자·보 물라요" 2면
쌀 소비 촉진 향토업체를 찾아서 12면
이법호 감독 '3년 26억' 재계약 16면



OK! Now Jeonnam

OK! Now Jeonnam 전남으로 가자

OK! Now 전남을 주목하자

OK! 이제 전남이 세계로 응비한다

New Opportunity With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